

# 이즈모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여성이 날개를 펼치는 지역장생의 모델을 향하여

1945년 9월 2일, 일본은 이 날로 부터 100년 전, 페리제독이 성조기를 내걸고 입항했던 동경만에서, 또다시 성조기를 걸고 입항한 미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함에 따라, 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립, 일본을 포함한 구축축국(旧枢軸国)을 대상으로 한 적국조항(敵国条項)이 포함된 유엔헌장(1945년 10월 발효)을 받아들이고 1956년 유엔에 가맹했습니다. 그 이후 동서냉전하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번영은 있었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문제와 세계의 격동기가 함께 얽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1966년, 현청소재지 마쓰에시에서 10킬로미터 권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였으나, 일본 최대의 원자로를 포함한 3기의 원전을 모두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폐쇄가 『재정핍박』, 『중해(中海) 간척사업중지』, 『오오하시강(大橋川)의 개착』, 『다케시마의 날 제정』, 『공공시설의 진부화·이용자 감소』등의 현상을 낳아, 문화·정치·경제의 활력 저하와 급속한 인구감소를 초래하며 폐색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아스에서는 고이즈미야쿠모(小泉八雲)의 『열린정신Open Mind』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니시키오리케이(錦織圭) 선수의 활약과, 니시키오리요시나리(錦織良成) 감독과 EXILE TRIBE HIRO 가 만드는 영화 다타라 사무라이(たたら侍)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마쓰에(松江)와 이즈모(出雲)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반도는 핵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결절점에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내걸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지역 창생」 「여성의 활약」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율적 재생과 국민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 불가결합니다. 당사가 시장을 창조한 고속자동문도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마쓰에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언어 RUBY를 활용하여 개발한 클라우드 종합 물관리 시스템 「야쿠모수신(ヤクモ水神)」도 「차세대의 사회인프라」로서,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가 2010년 동경국제포럼에서 2700명 앞에서 발표, 국토교통성의 성공모델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보급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쿠모 수신의 원점인 치수의 위인 스도야헤이「周藤彌兵衛翁」의 대형동상을

중 일전쟁의 격전지였던 산둥성에서 제작, 8월1일 물의 날에 마쓰에시 야쿠모초의 지역민의 협력을 얻어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재단과 네덜란드의 예술가 롤레마씨의 협력으로 소설「무기를 버려라」「하늘의 만행」으로 이미100년  
 이전에 세계대전을 강하게 경고했던 여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베르타 본 스토너 동상 건립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기획에 의해 심포지움의 강연자이기도 한 입부 쓰네코(イッブ常子)씨도 참가하는 스토너의 1인 연극  
 「정열에 타오르는 혼」이 동경 히로시마 교토 나고야에서 상연됩니다.  
 이 심포지움이 계기가 되어 평화에의 염원을 담은 「國民國連구상」(2009년 북경, 2014년 비엔나에서 발표)이,  
 나가사키대학(長崎大学)의 핵병기 폐절연구센터의 「북동 아시아 非核兵器地帶構想」, 마라라 유사프자이의  
 노벨평화상수상, 이즈모대사(出雲大社)의 천궁(遷宮)과, 天皇家와 이즈모대사 宮司家 婚事 축하 분위기의 순풍을  
 타고 이즈모에서 세계에 날개짓 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마츠아키오 小松 昭夫

一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理事康  
 小松電機産業株式会社 代表理事